

건강 칼럼

자동차사고 후유증의 한방치료

요즘 늘어나는 환자들이 있다. 바로 교통사고 환자이다. 자동차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의 사고가 늘어나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벼운 경우에는 차의 손상으로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사고가 경중에 따라 다르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는 경우에서부터 가벼운 타박상으로 고생하는 경우까지 자동차사고의 경중은 매우 다르다. 가벼운 경우에는 가벼운 침치료 만으로도 효과를 본다. 그러나 상당수의 환자들은 통증이 남아서 계속 고생을 하며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도 많다.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통증은 목과 어깨의 통증이다. 갑작스럽게 정지를 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가해차량 뒤에서 받으면 가장 먼저 손상을 받는 곳은 목과 어깨이다. 주로 앞의 차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졸음운전으로 갑박 졸면 고속도로 앞차를 받아서 생긴다.

갑작스런 뒤에서의 충격은 머리를 뒤로 재깎다가 반동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경추에 손상을 준다. 가벼운 경우는 목의 긴장과 통증, 목디스크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충격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경추의 척수의 손상이 되면 목 아래의 팔, 다리의 전신 손상이 올 수 있으며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도 불행하게도 평생

휠체어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허리의 통증이 온다. 뒤에서 차가 받으면 척추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게 되며 허리의 통증, 허리디스크, 고관절통증, 하지마비 등의 다양한 증세가 나타난다. 평소의 허리전만증, 일자허리, 골반의 비대칭, 척추후만증 등의 증세가 있는 경우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재발되거나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부딪혀서 타박을 입는 부위에 통증이 오는 경우이다. 옆에서 타박을 입는 경우에는 어깨나 상지, 옆구리 등의 손상이 온다. 앞으로 강하게 나가는 경우에는 얼굴, 머리, 가슴이 전연 유리창이나 운전대에 부딪혀서 통증이 온다. 가벼운 경우는 멍이 드는 정도이지만 심하면 골절과 출혈증세도 올 수 있다.

하체는 고관절, 허벅지, 무릎, 발목 등의 타박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다. 무릎이나 발목, 허벅지, 고관절의 타박으로 인하여 어혈이 많이 생기고 붓고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불리는 증세이다.

갑작스런 충격으로 인하여 타박을 입게 되면 순간적으로 놀라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순간 졸도를 하며 몇 초에서 몇 분 이상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다. 순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것이다. 많은 교통사고 환자 중에는 하루, 이를 관찮다고 하며 멍하니 지내다가 2~3일 심하면 2~3주 후에 통증이 나타나서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후에 약 1주일 정도는 비몽사몽간에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차안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같은 조건이라면 양호한 편이다. 오토바이나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몸과 차가 직접 부딪히는 경우에는 가볍게 부딪혀도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보통 타박상, 외상, 출혈, 골절 등의 심한 증세로 고생을 하게 된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가벼운 사고에도 평소의 질병과 합쳐져서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고생하시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다.

교통사고는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한다. 어느 순간에 어떤 방향에서

사고가 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상대방은 전자가 모두 정상이라는 생각보다는 술을 마시거나 졸음운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한다.

▲한의원에서 어떤 한자분이 치료를 하나?

한의원에서 교통사고를 치료하는 비율이 많이 늘었다. 외상이나 골절 등으로 심한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외래로 올 수 있는 경우나 근육통, 골절통, 경추통, 요통, 고관절통, 슬통, 상지통, 하지통, 각종 근육통 등의 경우에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호평을 받고 있다. 골절, 출혈, 외상후에 병원에서 퇴원후의 치료에서도 한의학적인 치료가 효과적이다.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가능한 치료는 침, 물리치료, 추나요법, 약침요법, 봉침요법, 한약요법 등으로 치료를 한다. 사상체질진단에 따른 치료도 가능하다. 직접적인 타박이나 손상부위의 통증 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침치료, 한약치료가 가능하다. 경피온열검사와 X-ray 등을 이용하여 통증의 부위, 골절부위, 경추, 흉추, 요추, 골반, 견관절, 슬관절, 주관절, 수족관절의 불균형, 비대칭을 분석하여 한의학적 체형교정을 하여 치료를 한다.

사설

시급한 현안에 힘을 집중해야

전북도는 시급한 현안에 힘을 집중해야겠다. 군산 GM의 폐쇄로 지역 사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실질 피해자들은 풀이 죽을대로 죽어 있다. 도대체 되는 게 없는 형국이다. 지방 선거가 코앞이지만 전북도는 관심사를 하나로 집중해야겠다. 해결 해야 할 현안에 우선적으로 시선을 주어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했던 바우선순위의 현안에 제대로 힘을 실어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겠다.

다른 고장은 낱말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왜 안 되는지 유감이다. 전북도는 제 뉘를 꿰김에 있어 끈질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다른 광역 시도들과 비교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뻔하다.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전북도는 역척스러움을 보여야 한다. 지역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 뉘를 온전히 쟁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 지역의 발전이 시원치 않다고 여러 번 반복해 토로했거나와 다른 지자체의 발전상과 비교해보면 이쪽의 모습은 발전 감지가 없다. 다른 광역 지자체 지역은 인구

가 불어나거나 유지되고 있는데 이쪽은 그렇지 않다. 전북도는 그 이유를 인식해야 한다. 도내 거주 인구 현황을 보면 매우 답답하다. 전주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고 다른 시군은 인구가 하릴없이 줄고 있다. 그것은 우리 지역의 발전상이 미미한 탓이다. 지역이 보다 발전하지 않는다면 전북 인구 2백만은 헛된 자존심이고 헛된 희망사항일 뿐이다. 도민들이 매년 안타까워하고 있거나와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의 증액된 예산과 기업들의 투자를 더 이끌어내야 한다.

도시사를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은 문제 현안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전북도는 살려 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대답이 없다. 덕담 수추의 말을 되풀이하면서 코끼리 비스켓 수준의 긴급 지원금을 말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런 때 편던려 좋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 고장의 낙후와 관련하여 도민들은 마음 고생이 심하다. 전북도는 제 뉘를 행기는 강단을 보여야 한다. 잃어버린 일자리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 지금 전북도의 목표는 원차고 활발한 것이 전혀 아니다.

청년 일자리 더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요즘이다. 정부가 출범할 때 일자리 81만 개를 약속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호응이 있어야겠다. 이런 말을 거듭해서 하는 이유가 있다.우리 지역의 청년 취업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전북도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게 있다. 전국 최하위의 취업성적표를 이제는 어떻게 바꿔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물음이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다른 광역시도와 경쟁하는 위치에 있다. 이 냉정하고도 엄연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전체가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진단이다. 감각을 둔한 채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 열기를 달구어야 한다. 언론사가 카메라를 들이 대고 기자들이 현실의 문제를 짚을 때만 협조하는 척 할 게 아니다. 청년 고용 열기가 식지 않도록 다들 진정성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열기가 기대치보다 못한 현실이 답답하다. 도내 취업 현실이며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

적이 관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는 청년 실업이 전북도가 파악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전북도가 때때마다 발표한 실업률의 수치에 공감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 기대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 되리라는 믿음이다. 우리 지역 청년들이 바라는 바 관할은 일자리를 마련하려면 항상 그래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전북도에게 거듭 강조해 당부한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침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전북 청년들의 뉘를 제대로 챙기려면 다른 지자체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저번에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서 성과를 냈다고 공표했던 것처럼 말이다. 역시나 청년 일자리 창출은 전북도의 치밀한 계획과 열정이 관건이다. 전북도는 다른 광역 시도들보다 기민해야 한다. 청년들이 공감하는 일자리를 많이 행기 위해서는 더 뛰어야겠다.

독자제언

PC방에서 게임하다 쓰러진 얼마 앞에는 아토피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가 있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은 '폭력이나 방임이나 뭐가 달라 라며 분노한다. 지구대를 중심으로 그려지는 드라마 '라이브'에서 다뤄진 이동학대는 제대로 된 치료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를 보여줬다. 이처럼 병원에 가야하는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방치하는 행위 역시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중 '방임학대'에 해당된다. 신체적 학대만을 아동학대라 생각할 수도

아동 방임 역시 근절돼야 할 아동학대

있지만 아동은 폭행하는 것만이 아동학대가 아니다.

'방임학대'는 크게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로 나뉘는데 '물리적 방임'은 아동에게 의식을 제공하지 않고,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 아동들을 방치하거나 아동들을 집에 두고 부모가 가출하는 등 아동이 정상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적 방임'은 아동의 의무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질병이나 장기 가족 여행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이다.

'의료적 방임'은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않아 병을 키우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집에 두고 부모가 가출하는 등 아동의 병을 치료할 거부하는 행위가 바로 의료적 방임이다.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거나 베이비 박스, 시설 등에 아이를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방임학대 중 '유기'에 해당되며 아동은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정신적 고통까지 겪을 수 있다.

보호자의 보호와 관리를 받을 의무가 있는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 역시 신체학대 만큼이나 심각한 아동학대이다. 자칫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아동 방임에 대한 관심을 가집으로써 더 이상 아이들이 부모의 무관심에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

김소정 고청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